

“한낮 무더위 피하려고”... ‘아침형 인간’ 늘었다

이른 시간 운동하는 시민 증가
주택가 근린공원에서 걷기·달리기
6월 들어 헬스장 아침 방문 늘어
평년 비해 고온...건강 관리 유의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상쾌하기도 하고 하루가 더 활기찬 것 같아서요.”

6월부터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낮의 피약별과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들은 아침부터 집 근처 공원에 가거나 헬스장을 방문해 운동하는 등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10일 오전 6시께 찾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근린공원,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시민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로를 뛰고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직장인 박선우(57)씨는 “아침에 산책로에 나와 걸으면 하루가 정말 상쾌해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걷기를 하고 있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임에도



10일 오전 찾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근린공원, 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산책을 하거나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다.

“좋은 아침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 안부 인사를 건넸다.

공원에는 걷기 운동 외에도 넓은 잔디밭에 모여 게이트볼을 하거나 나무 그늘 아래 놓여있는 여러 운동기구를 사용해 근력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평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공원에

지만 최근 무더위와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이른 시간에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모(68)씨는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져서 비교적 시원한 아침에 운동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 하루에 한 번은 꼭 야외로 나와 운동한다”며 “저녁에도 가끔 나와 운동하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운동 후 땀범벅이 된 시민들은 나무 정자에 앉아 쉬며 “아침에 땀 흘리니까 좋은데 벌써 덥네”, “이제 더워질 텐데 더 빨리 나올까 봐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시각 찾은 광산구 수완동 한 헬스장 역시 ‘아침형 인간’을 실천하기 위해

일찍 나와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학생 성병수(26)씨는 “요즘 날씨가 매우 덥다 보니 낮보다는 아침 운동을 선호하고 있다”며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시원한 아침 바람을 느끼며 운동하니 무더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헬스장 직원 최시은(28)씨는 “최근 아침 시간에 나와 운동하는 회원들이 부쩍 늘었다. 6월 들어 날이 더워지다 보니 확실히 회원들의 방문이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부쩍 더워진 날씨가 비교적 선선한 이른 아침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증가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날 광주와 전남은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지역 최고기온은 26~31도로 평년(24~29도)보다 높았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한낮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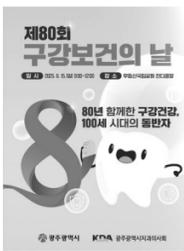
글·사진·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광주시, 무등산 증심사지구서 구강건강 캠페인

15일 치과전문가 등 민관합동
구강검사·불소도포 체험부스 등

광주광역시시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9일)을 맞아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 관리사무소 앞 잔디광장에서 민·관 합동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을 연다.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치과 의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치과위생사협회, 5개 자치구 보건소,



광주지역 2개 치과대학·5개 치위생학과 등이 참여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구치·臼齒)의 ‘9’를 조합해 6월9일로 정해졌다. 평생 사용해야 할 치아를 소중히 관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구강상담·구강검사 △잇솔질

(TBI) 교육 △불소도포 △구강보조용품 사용법 안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 치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구강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행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구강 습관을 실천해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5월 전남 관광객 788만명 ‘역대 최다 기록’

전남관광플랫폼 가입자 5천명
특화여행상품 매출 21억 ‘경중’

전라남도도가 여행업계 위기 극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한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은 총 788만명으로 역대 5월 관광객 중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방문의 달’ 시행 직전인 지난 4월(601만명)보다 187만명(30%), 지난해 5월(730만명)보다 58만명(8%) 늘어난 규모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공식기록으로 집계된 지난 5월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도 520만대로, 전월보다 110만대(27%)나 많았다.

5월 전남에서 열린 19개 축제의 방문객은 2024년보다 25만명(20%) 늘어난 159만 명으로 집계됐다.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79만명), 해남 우항리공룡박물관(15만2000명), 함평 엑스포공원(17만 명), 담양 죽녹원(12만4000명), 목포 해상케이블카(9만6000명) 등 주요 관광지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전남도가 ‘방문의 달’을 맞아 준비한 숙박·위케이션 반값 할인, 특화 여행상품 운영, 관광지·체험시설 시군 연계 할인 등 파격적 프로모션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의 5월 신규 가입자는 5503명, 월매출은 2억970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2.3배, 5.2배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특화 여행상품을 운영한 39개 여행사도 지난해보다 2.6배 늘어난 2만 900명을 모집해, 5월 한 달 동안 2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 방문의 달’을 통해 많은 관광객께 전남여행의 즐거움을 드리고, 여행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혜택과 특별한 관광상품을 많이 준비해 계절마다 전남 관광의 매력을 한껏 만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서울서 대면 홍보활동 전개

AI 농업·스마트팜 등 핵심정책 소개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 전라남도 홍보관에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5 국제농업박람회’의 대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을 키우는 케이(K)-농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람회 공식 홍보 전단을 비롯해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며,



국제농업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와 행사 취지를 관람객들에게 적극 알렸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전라남도의 스마트팜 보급 정책, 유기농식품 생산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첨단 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2025 국제농업박람회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케이-농업’의 현재임을 부각시켰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 기간 중 인공 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시연, 농업 스타트업 전시회, 국제학술대회 등 첨단 기술과 농업의 융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 여수 국가산단 공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전기제어시설 소실

전남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조업체 공장서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여수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 27명의 인력을 동원해 1시간54분 만인 오전 5시24분께 완전 진화했다.

이번 화재로 공장 내부에 설치된 전기 제어시설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현재 공장내부에 잔열이 남아있어 진압 소방관이 현장에 남아 연기를 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담벼락 들이받은 음주 의심 50대, 측정 거부하다 ‘체포’

광주광역시 도심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께 서구 풍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

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주차 도중 상가 철문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고, 목격한 시민은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